

# ‘검객’ 김재원·최세빈 “부담감 내려놓고 즐겨보겠다”

2024 파리 올림픽 광주·전남 태극전사 <3>

김, 28일 펜싱 에페 남자 개인전 한국 선수 중 유일 출전권 획득  
최, 29일 펜싱 사브르 여자 개인전 내달 3일에는 단체전 출전 준비

국가대표 펜싱복을 입은 광주서구청 김재원(26)과 전남도청 최세빈(23)이 각각 에페 남자 개인전과 사브르 여자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나란히 올림픽 메달을 향해 검을 겨룬다.

지난해 9월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나란히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재원과 최세빈은 더 큰 무대인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나란히 메달을 사냥하겠다는 각오다.

김재원은 “세계 랭킹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과 만나게 된다. 주눅 들지 않고 후회 없이 경기를 펼치겠다”며 “올림픽은 아시안게임보다 크고 어려운 무대지만 메달 욕심을 내보겠다. 색깔에 관계없이 반드시

시 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세빈 역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다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좋은 성적으로 한국에 돌아오겠다”며 “올림픽은 모두에게 꿈의 무대다. 출전하는 선수들이 모두 열심히 준비했겠지만 다른 국제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재원과 최세빈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떠나 풍텐블로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에서 마지막 담금질에 돌입했다. 김재원은 오는 28일 개인전에 돌입하고 최세빈은 오는 29일 개인전을 치른 뒤 다음 달 3일 단체전에도 나선다.

김재원은 “아쉽게도 단체전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해 개인전에만 도전하게 됐다”며 “올림픽은 출전권을 획득한 세계 선수들이 본선에 나서는 시합이기 때문에 더 치열할 것 같다.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김재원



최세빈

최세빈도 “진천선수촌에서 사전 캠프를 통해 충분히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며 “기술 훈련과 전술 훈련에 함께 집중했다. 자체 연습경기를 치르면 서 자신감도 충분히 얻었다”고 말했다.

펜싱은 개인전의 경우 64강부터 결승, 단체전의 경우 16강부터 결승까지 모든 일정이 하루 안에 마무리 된다. 체력 관리의 중요성도 크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정신력이다.

김재원은 “정신이나 마음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내려놓고 편안하게 즐기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파리의 분위기에 빠르게 녹아들겠다. 완벽하게 적응을 마쳐 멋진 경기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최세빈 역시 “기술이나 전술적으로는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했다. 특히 약점을 보완해서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 많이 신경 썼다”며 “준비를 잘한 만큼 부담 없이 경기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 부담감은 내려놓고 잠도 잘 자면서 편안하게 마지막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의 경우 팀 동료이자 베테랑인 강영미(39)가 함께 파리에서 준비 과정에 몰두하고 있다. 여자 에페 국가대표팀에 승선한 강영미는 오는 27일 개인전에 출전한 뒤 30일에는 송세라, 이혜인, 최인정과 단체전에서 호흡을 맞춘다.

김재원은 “사전 캠프 때부터 누나가 많이 챙겨주려고 하신다”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정말 잘 챙겨주시고 후배들을 신경도 많이 써주신다. 정말 감사하고 같이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최원준



김도영



소크라테스

## KIA 최원준·김도영·소크라테스 7월 ‘셀힐릭스플레이어’ 주인공 될까

타자 부문 2·4·5위… 집안싸움



KIA 타이거즈 최원준과 김도영,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한국셀렉 유주식회사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시상하는 7월 ‘셀힐릭스플레이어’ 주인공을 노린다.

최근 세 선수 모두 타격감이 뜨거운 만큼 현재 타자 부문 선두인 삼성라이온즈 강민호를 충분히 추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원준은 7월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1.20을 기록하며 2위에 올라 선두 강민호(7월 WAR 1.36)를 0.16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김도영은 7월 WAR 0.99로 4위, 소크라테스는 7월 WAR 0.90으로 5위에 올라 있다.

최원준은 월간 타율 0.415(3위), OPS(출루율+장타율) 1.160(3위), 출루율 0.500(공동 3위), 안타 22개(공동 3위)를 기록하면서 타격 지표가 대부분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특히 7월 2주 차(9~14일)에는 여섯 경기에 모두 나서 타율 0.478(23타수 11안타)에 사사구 5개와 도루 3개를 더하며 4타점 8득점을 생산했고, 출루율은 0.571에 육박했다. 또 일곱 차례 득점권 기회 중 네 차례를 적시타로 연결하기도 했다.

투수 부문에서는 NCD아이노스 카일 하트가 7월 WAR 1.29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트는 7월 세 차례 선발 등판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것은 물론 모두 퀄리티스타트를 챙기며 위력을 떨치고 있다. 월간 평균 자책점은 0.00으로 당연한 1위이고, WHIP(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0.70으로 1위다.

하트의 뒤에는 롯데자이언츠 찰리 밴즈(7월 WAR 1.08)와 KT위즈 박영현(7월 WAR 0.84)이 추격을 시도하고 있다. 약 한 달 만에 부상에서 복귀한 밴즈는 이번 달 세 차례 선발 등판에서 모두 퀄리티스타트를 기록, 2승을 챙겼다. 박영현은 이번 달 일곱 차례 등판에서 9.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4세이브를 챙겼다.

한규빈 기자

## 전남도의회, 파리올림픽·패럴림픽 전남선수단 선전 기원

응원 파이팅 퍼포먼스 펼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이하 경관위) 의원들이 2024 파리 올림픽과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전남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23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경관위는 지난 22일 도의회 경관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관위 제383차 임시회의 소관 행정기관(전남도체육회·전남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에서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전남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퍼포먼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퍼포먼스에서는 경관위 의원 전원이 전남선수단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한마음 한뜻으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을 연호했다.

특히 경관위 의원들은 이번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지역 스포츠 활성화 및 체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올림픽에서 전남 소속(6명) 및 출신(3명)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원들과 전남도, 전남도체육회, 전남장애인체육회 관계자가 지난 22일 도의회 경관위 회의실에서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전남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윤명희 위원장은 “이번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전남 선수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세계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며 “전남도민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고 응원했다.

이어 “좋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귀국하길 바란다. 향후 전남도의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전남 선수단은 근대5종 서창완(국군체육부대), 양궁 남수현(순천시청), 배드민턴 정나은(화순

군청), 펜싱 최세빈(전남도청), 복싱 임애지(화순군청), 육상 김장우(국군체육부대) 선수다. 여기에 전남 출신 배드민턴 안세영(나주 출신·삼성생명)이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사격 이보나(신안 출신·부산시청), 수영 김민섭(여수 출신·독도스포츠타운)도 무대에 오른다. 특히 근대5종 서창완은 ‘2024 국제근대5종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올라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기대되고, 양궁 남수현도 올림픽 여자 단체전 10연패의 대기록에 도전한다.

최동환 기자

## 광주FC 정호연, 링가드 대신 토트넘 상대한다

팀 K리그 ‘팬 일레븐’ 대체 선발

‘광주FC의 중심’ 정호연(사진)이 토트넘 홋스퍼 FC를 상대하게 됐다. 지난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역전골 겸 결승골을 터트리며 화제가 됐던 이순민에 이어 다시 한번 광주가 깜짝 스타를 배출할지 주목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팀 K리그와 토트넘의 맞대결에 나설 예정이었던 ‘팬 일레븐’ 제시 링



정호연

가드와 기성용(이상 FC서울)이 부상으로 소집이 불가능해져 팬 투표 차순위였던 정호연과 오베르단(포항스틸러스)을 대체 발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정호연은 지난 5~14일 진행된 팬 일레븐 투표에서 2만3466표를 얻으며 링가드(4만6792표)와 기성용(3만4775표), 이동경(3만1965표)에 이어 4위에 오른 바

있다. 오베르단은 1만6113표로 5위였다.

이와 함께 연맹은 팀 K리그를 이끌 박태하 감독(포항스틸러스)과 김은중 코치(수원FC)가 선발한 ‘픽 텐’ 명단도 발표했다. 팀 K리그는 쿠팡영플(22세 이하 선수) 1명과 팬 일레븐 11명을 팬 투표를 통해 가리고, 픽 텐 10명을 더해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픽 텐은 현재 K리그1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국내 선수들과 외국인 선수들을 통틀어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선수들의 세부 포지션과 팀별 배분을 고려했다.

한규빈 기자